



지난 8일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정련동 건물 해체 작업을 위해 기막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17일 불이 난 정련동 건축물은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해체에 돌입, 11월 10일까지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뉴스시스

## ‘화재’ 금타 광주공장 폐기물 9.2만... “덤프트럭 4000대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련동 해체 과정에서 덤프트럭 4013대 분량의 9만2311t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해체가 시작되면 공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이 하루 평균 60대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 분진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금호타이어와 건축물 해체 시공사에 따르면 11일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련동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

해체가 이뤄지는 정련동 건물 건축면적은 4만3873㎡, 지상 3층 규모다. 건축 전체를 3층부터 1층까지 차근차근 뜯어 해체하는 압쇄 방식을 적용한다.

시공사는 해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이 9만62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5t짜리 덤프트럭 3915대로 운반해야 할 정도의 물량이다. 건축혼합 폐기물도 덤프트럭 98대가 필요한 2249t이

정련동 11일부터 해체... 콘크리트 등 폐기물 대량 발생 공사 92일 예상... 주말 제외하면 최소 66일 작업할 듯 덤프트럭 하루 평균 60.8대 운반 예상... 시간당 7.6대꼴 주민들, 분진·소음·교통안전 등 우려... “대책 있어야”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콘크리트와 건축혼합 폐기물을 모두 합치면 총 9만2311t다. 덤프트럭 4013대 규모다.

금호타이어와 시공사는 해체 작업 기간을 1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총 92일로 잡고 있다. 작업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점심 시간(낮 12시~1시)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작업 시간은 8시간이다.

단순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작업일은 66일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이 기

간 4013대의 덤프트럭이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하루 평균 60.8대가 공장을 드나들게 된다. 시간당 약 7.6대 수준이다.

건축물 해체가 시작되면 하루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공장 일대를 오갈 것으로 보이며 인근 주민들도 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주민은 “불이 난 지 3개월이 다 됐어도 아직까지 분진이 날리고 있다. 해체가 시작되면 먼지와 분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분

진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지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장 일대 도로에 수많은 덤프트럭이 오고 가게 된다”며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고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주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폐기물을 반출할 때 덤프트럭 등 차량 바퀴에 묻은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한다는 입장이다. 물로 바퀴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이용해 트럭이 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살수 작업을 진행해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이나 연소 잔재물은 집진형 펌프카를 활용해 별도 포집, 슈퍼백에 담아 특정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는 등 주민 피해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석도일 기자

## 광주 도심 상습 침수, 중장기 해법은?

‘보름새 두차례 괴물 폭우’ 이재민·침수 대규모 피해 “복개하천 복원·녹지공원·투수포장”... 물순환 도시로

광주 지역에서는 올 여름 보름 새 두 차례 폭우로 큰 물난리를 겪었다. 수백 명의 이재민과 수천 건에 이르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개 하천 복원과 함께 투수 공간을 늘려 물그릇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 광주 지역에 527.2mm 괴물 폭우가 내려 이재민 286가구(417명)가 발생하고 도로·하천 침수 등 시설 피해만 3837건을 기록했다. 지난 9일 또다시 100mm가 넘는 비가 왔다.

하천 저지대에 위치한 마곡동을 포함해 북구 용강동, 남구 백운광장·빛고을공예촌 등이 침수 피해를 봤다. 도심 하천 수위가 홍수 경보 수준에 이르며 범람 위기도 있었다.

이번 비로 용봉·서방천 합류 구간 일대인 신안동 주민들이 큰 물난리를 겪었는데, 보름 만에 또다시 197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들은 또다시 폭우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배수관로 합류 지점에서 용봉천 수압이 거세 서방천 물이 넘치면서 저지대인 전남대 정·후문, 신안교, 문흥동 일대가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것이다.

광주시는 이 일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서방천 복개구간 일대 3곳에 2028년까지 7만㎡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방천에 배수문 11곳을 설치하고 하천 폭을 확대,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신안철교 교각을 축소하는 등 토목 공사 위주의 대책을 내놨다.

영산강환경청은 광주천 범람을 막기 위해 지하에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광주천 대심도 지하방수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도시 침수 원인으로 ‘복개하천’을 꼽았다.

광주 도심 하천 복개는 1970년대 양동 복개를 시작으로 지류하천 총 15곳(46.2km)에 걸쳐 진행했다. 이 중 9개의 하천이 광주천 유역으로 유입되

고 있다. 북구 월출동 학림천, 광산구 비야동 진원천, 서구 마곡동 마곡천의 경우 전 구간이 복개됐다. 서구 서창동 서창천, 북구 장등동 장등천, 광산구 선암동 선암천 등은 일부 복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방천은 광주 북구 일대를 지나는 긴 도심 하천인데, 일부 복개돼 콘크리트로 덮이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로 폭이 12m밖에 안 되는 서방천으로 빗물이 집중되고 물이 넘치면서 이 일대에 상습 침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설 위주의 정비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하천 생태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존위원장 “지류하천은 증심사천을 제외하고 복개가 됐다”며 “광주는 오랜기간 복개 하천과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물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폭우·폭염에 노출됐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복개 하천 복원을 통해 범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호우로 상습 침수가 반복된 서방천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수 포장 면적을 늘리고 습지 공원을 조성해 빗물 흡수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이 잘 스며들지 않으면 빗물이 모여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광주의 불투수 면적은 124.57㎢로 전체 면적(498.36㎢)의 2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8개 특·광역시·특별자치시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도로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투수 포장해야 한다”며 “주택마다 침수방지 물통을 설치하거나 도심 곳곳에 습지공원을 만들어 물이 특정 구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기자

##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